

오차노미즈 여자대학에서의 반년

건국대학교

임가은

k2690004

어릴 때부터 일본에서 유학해보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I 지망이었던 오차대에서 공부할 수 있어서 참 기뻐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먼 곳에서 혼자 살아가는 건 처음이고, 언어적으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수업을 듣고 일상소통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토론이나 발표가 많아, 익숙해지는데에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다들 친절하게 협력해주셨기 때문에 그룹발표 과제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익숙한 사람이 적다 보니 외로움이 생길 듯 했지만, 부활동을 하니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미술부에 가입했는데, 매주 과자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몹시 소중한 시간입니다. 짧은 가입기간에도 불구하고 친근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학교에 항상 학생증을 가지고 다녀야하는 것은 놀랐습니다. 그러나 지내보니 학교가 몹시 조용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숙사 또한 깨끗하고 조용해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학기동안 들었던 수업 중 기억에 남는 것은 동양미술사입니다. 일본 에도시기의 작가들과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수업이었는데, 새롭게 알게 되는 것 뿐이라 매주 수업이 흥미로웠습니다. 교수님이 학예사로 계신 미술관의 전시 또한 감상할 수 있어 공부가 되었습니다.

수업이 없는 날 저는 주로 미술전시나 공연을 감상하고, 여행을 했습니다.

거의 매주 좋아하는 밴드들이 도쿄에서 공연을 해서 몹시 좋았고, 부러웠습니다. 특히 후지락 페스티벌에 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학기 중에는 근처 위주로 여행했는데, 요코하마, 카마쿠라, 츠쿠바 등 도쿄 인근 지역에 다녀왔고, 친구랑 심야버스로 고베까지 가보기도 했습니다.

평소 sns 로 교류하던 화가분들과 실제로 만나기도 했습니다. 모두들 진심으로 환영해주셨고, 저의 그림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튜터인 모리무라 코토노씨와 지도교원인 우치야마 나오키 선생님, 그리고 이지원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경험하는 해외생활에 떨리기도 했지만, 많은 분들 덕분에 유익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차노미즈 여자대학에서 지낸 시간은 잊지 못 할 것 입니다.

